■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91-225.
http://doi.org/10.17948/kcs.2021..91.191

『노계선생문집』 판본 연구

김석배(金奭培)*

목 차

1. 머리말
2. 『노계선생문집』 초간본의 특징
3. 『노계선생문집』의 후대본 검토
4. 맺음말

국문초록

노계 박인로의 문집인 『노계선생문집』은 覆刻과 追·補刻이 몇 차례 이루어져 여러 판본이 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초간본 『노계선생문집』 권지3(歌)을 찾아낸 것을 계기로 『노계선생문집』의 판본 전반에 대해 다시 살펴 『노계선생문집』의 판본 이해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31년에 초간본이 3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노계의 7대손 박경호와 8대손 박천주·박희주가 주동이 되고, 정하원과 최옥이 주관하여 간행한 것이다. 초간본의 특징은 '「世系圖」-「目錄」-「圖」' 순이고, 「세계도」는 1世 朴中美-17世 天柱까지 수록하고, 필사본 『노계집』을 수정, 보완하거나 삭제하였다.

둘째, 『노계선생문집』에는 복간본과 추간본 등 여러 판본이 있는데, 각 판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覆刊本은 1880년 무렵에 간행되었다. 「世系圖」는 1世 晉祿-20世 容鎭까지 수록하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였고, ‘「目錄」-「世系圖」-「圖」’ 순이며, 초간본을 수정한 것과 誤刻한 것, 글자체가 달라진 것이 있다.

② 追刊本은 1900년 이전에 간행되었다. 초간본 및 복간본에 없는 노계와 관련된 시문을 권지2에 ‘續附’로 追錄하였다.

③ 甲辰本은 1904년에 간행되었다. 「도산가」를 수록하기 위해 간행하였는데, 「도산가」가 없는 판본과 「도산가」가 있는 판본이 있다.

④ 庚子本은 1960년에 간행되었다. 새로 발견된 「입암」 7수와 시조 “江湖에 (…)”를 수록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다. 복간본의 誤刻된 부분을 다시 판각했으며, 권지2에 「입암서원통문」과 권지3에 권상규의 「後敍」를 추록하였다. 「도산가」가 있는 판본과 「도산가」가 없는 판본이 있다.

주제어: 박인로, 『노계선생문집』, 초간본, 박천주, 박희주, 정하원, 최옥, 특징, 후대본, 복간본, 추간본, 갑진본, 경자본, 「입암」 7수, 「도산가」, 「후서」.

1. 머리말

노계 박인로가 시가 작가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윤문이 1690년 3월 경북 영천에서 노계의 시가 작품을 수록한 목판본 『경오본 노계가집』을 간행하였기 때문이다.[1] 이 가집에는 「사제곡」, 「누항사」, 「상사곡」, 「권주가」 등 가사 4편과 소위 「조홍시가」로 알려진 단가 4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단가 4장이 『청구영언』(1728)과 『해동가요』(1763) 등에 수록됨으로써 노계는 일찍부터 시조 작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1920년대 말 六堂 崔南善의 『時調類聚』[2]와 南倉 孫晉泰의 『朝鮮古歌謠集成』[3]이 간행될 때까지도 노계에 대해서는 ‘宣祖時, 萬戶’ 정도만 알려졌을 뿐 字와 號도 알려지지 않았다.

노계 박인로가 우리 문학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鷺山 李殷相이 1930년 1월 『조선일보』에 「詩人 蘆溪와 그의 藝術 (1-11)」을 연재하면서부터이다.[4] 그 후 노계는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논문과 여러

1) 김석배 편, 『경오본 노계가집』, 구미문화원, 2006a.
2) 崔南善 編, 「時調 作家 檢索」, 『時調類聚』, 漢城圖書, 1928, 3면. “朴仁老 字 號 宣祖時 萬戶”.
3) 손진태, 『朝鮮古歌謠集成』, 刀江書院, 1929, 525면. “宣祖の時の萬戶. 親に至孝な人であつたと”.
4) 『조선일보』에 1930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11회(1-2, 4-7, 9-12, 14) 연재하였다. 1회는 「

편의 저서,[5] 박사학위논문[6]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선행연구에서 잘못 이해했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 이를 통해 그동안의 노계 문학 연구가 안고 있던 일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나아가 노계 문학 연구가 질적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노계선생문집』 판본도 이은상이 "蘆溪集은 二版이 잇스니 舊版은 正宗年間의 것이요 新版은 光武年間의 것인바 필자는 그 후자에 의거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8] 그 후 『노계선생문집』 판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초간본과 복간본의 존재를 모르거나[9] 초간본이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10] 논의한 것이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詩人 蘆溪와 그의 時調 (1)」이고, 2회부터 「詩人 蘆溪와 그의 藝術 (2-11)」이었다.

5) 박성의, 『노계가사통해』, 백조서점, 1960; 이상보, 『개고 박노계연구』, 일지사, 1962; 『노계시가연구』, 이우출판사, 1980; 황충기, 『노계 박인로 연구』, 국학자료원, 1994; 김문기 역주, 『국역노계집』, 역락, 1999; 김석배 편, 앞의 책; 김창규, 『노계시문학원전자료집성』, 박이정, 2006a; 『노계시문학논고』, 박이정, 2006b; 『노계시의 재조명』, 박이정, 2012; 『노계시평석』, 박이정, 2008;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신역 노계집』, 대보사, 2017; 노계연구총서 편찬위원회 지음, 『노계 문학세계와 문화콘텐츠화 전략』, 영천시, 2017.

6) 구수영, 「노계 박인로의 시가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6; 김용철, 「박인로 강호가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최영희, 「노계 박인로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2003;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4; 손장수, 「노계 박인로의 시문에 드러난 전고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9.

7) 이종문, 「노계 박인로 문학의 창작 공간과 유적 관련 몇 가지 탐색」,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a; 「입암이십팔경의 위치에 관한 재검토」, 『한국학논집』 39,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9b; 「〈노계가〉의 창작 연대와 노계 박인로의 노주 은둔 시기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47,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노계 박인로 행장의 변개 사실에 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97, 한국언어문학회, 2016;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노주 이주의 현실적 동인」, 『한국언어문학』 104, 한국언어문학회, 2018a; 「노계 박인로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82, 민족어문학회, 2018b; 성호경, 「박인로의 〈노계가〉 창작 배경 탐색—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의 '대현동구' 일대」,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8) 이은상, 「시인 노계와 그의 예술 (2)」, 『조선일보』, 1930.1.2.

9) 김문기, 「노계집 고사본의 고찰」, 『동양문화연구』 7,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80, 11면. "노계집 판본은 重刊이나 覆刻된 적은 없고 初刊 以後 3次의 補刻 및 追刊을 거치면서 影印이 이루어졌다."

10) 김창규, 앞의 책, 2006a, 2면. "筆者의 推測이긴 하지만, 1831年 板刻 事業만 完了하고, 『蘆溪集

필자는 2016년 7-8월 초간본『노계선생문집』가운데 권지1·2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내어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11] 그 자리에서 '노계문학관 건립을 계기로『노계선생문집』초간본의 권지3(歌)을 발굴하고,『노계선생문집』의 책판 중에서 분실된 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였다.[12] 그 후 2019년 8월 29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찾던 초간본『노계선생문집』권지3(歌)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확인하였으며, 2020년 8월 7일 초간본『노계선생문집』권지3을 구득하였다. 한편 2016년 당시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에도 초간본『노계선생문집』권지1·2가 소장된 사실을 알았지만, 책의 행방이 묘연하여 확인하지 못했는데 2018년 8월 20일 실물을 확인하였다.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초간본『노계선생문집』권지3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다음 과제로 미루어두었던『노계선생문집』권지3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초간본『노계선생문집』권지3을 찾아낸 것을 계기로『노계선생문집』의 판본 전반에 대해 다시 살펴고자 한다. 이를 통해『노계선생문집』의 판본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노계선생문집』초간본의 특징

초간본『노계선생문집』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1690년

』刊行은 經費가 다시 追加됨으로써, 當時 經濟的 形便으로서는 板刻만으로, 이 事業을 끝낸 것이 아닐까 한다. 아니면『蘆溪集』編纂과 板刻 事業의 中心에 서서, 主導的 구실을 다한 蘆溪 7世孫 慶濩가「序」에 8世孫 希柱가「跋」에만 言及되었을 뿐, 정작『蘆溪集』을 刊行하려니「世系圖」등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빠짐으로써, 宗孫家와 이들 사이에서 葛藤이 빚어져 刊行을 못 보고, 얼마간 歲月이 흐르고 난 뒤, 10世孫인 容鎭에 와서야,「世系圖」에 直系 宗孫만으로 追刻하여, 1900年 以前 刊行의 빛을 보게 된 것이 아닐까 推測하여 본다. 그러므로 1831年『蘆溪集』初刊本이 發見된다면, 여기에는 卷1에「世系圖」와 卷2 末尾에「續附」의 글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11) 김석배,「『노계선생문집』초간본 연구」,『민족문화연구』7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2) 노계문학관은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296(북안면 신평탑골길 93-33)에 개관하였다. 바로 옆에 道溪書院이 있다.

13) 이 장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김석배, 앞의 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庚午) 3월 漢陰 李德馨의 증손자인 李允文[14]이 경북 영천에서 소위 『경오본 노계가집』을 목판본(14장 28면)으로 간행하였다. 당시 영천군수였던 이윤문이 노계의 손자 進善(노계의 둘째 아들인 敬立의 차남)이 부르는 「사제곡」을 듣고 그것이 후대에 전해지지 못할까 염려하여 판각한 것이다.[15] 이때 노계가사 중에서 자신의 선조와 관련 있는 「누항사」와 「상사곡」, 「권주가」 그리고 단가 4장을 함께 판각하였다.[16]

『경오본 노계가집』 간행이 계기가 되어 노계 문중에서 노계문집 간행을 시작하였다. 노계의 4대손 聖規(1671~1710)가 노계의 遺文과 노계 관련 시문들을 모아서 簏叟 鄭葵陽(1667~1732)에게 교정과 행장을 부탁하였다.[17]

---

14) 이윤문(1646~1717)은 廣州人으로 자는 士雍이다. 1678년 司馬 增廣試(進士)에 1등으로 入格하였으며, 1685년 임실현감, 1690년 1-3월 영천군수를 지냈고, 1692년에 부평부사로서 춘당대 문과에 을과로 등과하였다. 학문이 깊고 문장에 능하여 世子侍講院의 文學·弼善·輔德과 司諫院 獻納·司諫, 司憲府 執義 등을 역임하였다. *한음은 슬하에 아들 7명(如圭, 如璧, 如瑻 등)과 딸 4명을 두었는데, 셋째아들 여황의 아들이 象震이고, 상진의 맏아들이 윤문이다.

15) 李允文, 「歌跋」, 『경오본 노계가집』. "涉堤曲, 何爲而作也? 昔在辛亥春, 曾祖考漢陰相國, 使朴萬戶仁老, 述懷之曲也. 世代旣遠, 此曲無傳, 恐其泯沒於後, 竊嘗慨然於心者稔矣. 不肖孫允文, 是歲庚午春, 除永川郡守, 仁老玆士人也, 其曲尙今流傳, 其孫亦且生存. 公餘月夕, 以其孫進善命歌而聽之. 怳若後生叨陪杖履於龍津山水之間, 愴懷益激, 感淚自零, 幷與陋巷相思勸酒三曲及短調四章, 而付諸剞劂氏, 以圖廣傳焉. 時是年三月三日也.(「사제곡」은 어떻게 하여 지은 것인가? 지난 신해년 봄에 증조고 한음 상국께서 만호 박인로로 하여금 회포를 펼치게 한 노래이다. 세대가 이미 멀어져서 이 노래가 전하지 못하고 후에 없어져버릴까 두려워서 은근히 애달프게 생각한 지 오래였다. 불초손 윤문이 경오년(1690) 봄에 영천군수로 제수되었는데, 인로는 이곳 사람이라 그 노래가 아직도 전해지고 그 후손도 또한 살아 있었다. 공사의 여가에 달 밝은 저녁이면 노계의 손자 진선으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여 들었다. 황차 후손이 외람되이 용진의 산수 사이에서 발자취를 뵈오매 서글픈 마음이 더욱 넘치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지라 「누항사」, 「상사곡」, 「권주가」 세 곡과 단가 4장을 함께 각판하여 널리 전하기를 꾀하였다. 때는 이 해 삼월 삼일이다.)"

16) 노계는 한음의 맏아들 李如珪(1581~1635)가 1632년 4월 상주목사로 도임 잔치를 열었을 때 그의 청으로 「상사곡」을 짓고, 한음의 셋째 아들인 당시 선산부사 李如瑻(1590~1633)의 청으로 1632년 4월 중순에 「권주가」를 지었다. 그리고 「단가 4장」 중에서 뒤의 3수는 한음이 1601년 9월 초 첫째 수("반중 조홍감이 …")를 보고 짓도록 청하여 지은 것이다. 형제는 같은 시기에 도임하였는데, 이여규는 상주목사로 1632년 4월 도임하여 1934년 4월 중병으로 사임하였고, 이여황은 선산부사로 1632년 4월에 도임하여 1633년 1월 10일 임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연구」,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b, 참고.

17) 김문기 역주, 앞의 책, 95-96면. "一日, 公之孫聖規裒遺文若而條, 託余曰: '吾先祖言行 碑於口久矣. 昔李州事允文氏求觀, 先祖行錄, 不肖無以應, 則李輒泫然流涕, 袖出樂府數章, 錄之籍, 令異時有爭行文. 夫夫也其必爲先祖左袒乎. 卽無錄而此藁若先釐成, 安知其不併梓也? 不肖是悔焉, 敢邀惠于吾子, 子其導之.' 葵陽作而曰: '無何翁之狀而葵陽爲之乎? 葵陽非其人, 恐不足以揄揚盛美, 敢辭.' 聖規責以鄕井之誼, 要速不舍. 遂

이를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 古寫本 『蘆溪集』[18]이다. 『노계집』에는 1707년 道溪祠 건립 때 찬한 「道溪祠上樑文」과 「奉安文」, 「常享文」 등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 고사본은 그 무렵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노계의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노계의 후손들은 노계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여러 대에 걸쳐 노력하였다. 노계문집의 간행은 7대손 慶浩와 8대손 天柱·希柱를 중심으로 노계의 墓碣을 세우는 일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9] 1831년에 雲窩 鄭夏源[20]과 近庵 崔鋈[21]의 주관 아래 마침내 문중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노계

再拜盥手而記曰.(하루는 공의 후손 聖規가 약간의 유문 조목을 모아 나에게 부탁하며 이르기를 '우리 선조의 언행은 口碑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전날에 州事 이윤문 씨가 선조의 行錄 보기를 원하였으나 제가 응하지 못하였는데, 이윤문이 문득 눈물을 흘리면서 소매에서 악부 몇 장을 내어서 典籍에 새겼으니 후세에 반 행의 글이라도 남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선조를 도우는 사람입니다. 행록이 없으면서 이 원고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함께 상재되지 못함을 어찌 생각하리오? 제가 이를 뉘우치면서 감히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無何翁의 행장을 제가 어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며 盛美를 드러내기에 부족할까 두려워 감히 사양합니다.' 하니 聖規가 鄕井의 情誼로써 더 이상 사양하지 말기를 요청하였다. 드디어 두 번 절하고 손을 씻고 이에 글을 쓴다.)" 『노계선생문집』의 번역은 이 책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윤색하였다.

18) 고사본 『노계집』은 노계 종가(慶北 永川市 北安面 道川里)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세로 28㎝ x 가로 22㎝이고 괘선(罫匡-세로 24.5㎝, 가로 17.5㎝)을 긋고 매면 12행, 매행 20자로 필사하였다. 앞부분과 뒷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결본으로 2권 1책, 38장이 남아 있는데, 圖와 노계의 시문과 노계 관련 시문, 그리고 「사제곡」과 「누항사」가 수록되어 있다. 「누항사」는 마지막 행이 "憲이ᄂᆞᆫ 몃 날 살고 石崇이ᄂᆞᆫ 몃 히 산고 貧富 업시 다"이고 그 이하는 낙장되었다. 『노계집』은 卷之一과 卷之二의 2卷 1冊으로 소략하다. 특히 歌集인 권지2는 경오본 『노계가집』을 轉寫한 것으로 추정되며, 낙장 부분은 圖 일부 등과 「누항사」의 마지막 일부와 「상사곡」, 「권주가」, 시조 4수 그리고 이윤문의 발문으로 짐작된다.

19) 김문기 역주, 앞의 책, 135-136면. "今年孟春, 約崔斯文子成編公遺稿, 繼而補三亥之缺. 旣了, 公後孫天柱從傍告曰, '先祖遺稿, 已經箎叟鄭先生草校, 又有狀德之文. 前後誼分, 莫鄭氏若也. 吾丈不容無一言.' 余自知非其人, 而言念世好, 不敢固讓, 竊識其所感於心者曰.(금년 이른 봄에 斯文 崔 子成과 公의 遺稿를 편찬하고 계속해서 글자의 오기를 찾아서 보완하고자 약속하였는데 조금 후에 공의 후손 天柱가 찾아와서 이르기를 '先祖의 遺稿는 鄭 箎叟 선생의 草校를 이미 거쳤고, 德을 적은 글도 있습니다. 前後의 교분이 선생만 한 분이 없으니, 어른께서 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만 대대로의 교분을 생각하여 감히 억지로 사양할 수 없어 가만히 마음에 느낀 것을 기록하여 말한다.)"

20) 정하원(1762~1833)은 본관은 延日, 자는 源遠, 호는 雲窩이며 鄭好信의 5대손이다. 문집으로 『雲窩文集』이 있다.

21) 최옥(1762~1840)은 본관은 月城, 자 子成, 호 近庵이며 동학을 일으킨 崔濟愚의 아버지이다. 臥

선생문집』이 3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것이 『노계선생문집』의 초간본이다. 현재 초간본 『노계선생문집』 권지1 · 2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권지3(歌)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필자도 소장하고 있다.

본고에서 주 자료로 삼은 초간본 『노계선생문집』 권지1 · 2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소장본(이하 '동경초본')으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59장의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2.4cm x 가로 20.5cm이며 五針眼線裝本이다. 表題는 '蘆溪先生集'이고, 內題는 '蘆溪先生文集', 版心題는 '蘆溪集一'과 '蘆溪集二'이다. 四周雙邊, 半郭 세로 21.0cm x 가로 16.0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등록번호 D1901, 청구기호 D810.819 박69, v.1 c.2 v.1 c.2'이다.[22]

필자 소장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초간본 『노계선생문집』 권지3(歌)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23] 33장의 목판본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32.4cm x 가로 20.5cm이며 五針眼線裝本이다. 表題는 '蘆溪先生文集'이고, 內題는 '蘆溪先生文集卷之三'이며 版心題는 '蘆溪集三'이다. 四周雙邊, 半郭 세로 20.3cm x 가로 15.6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한박본')의 등록번호는 '한구862'이며,[24] 필자 소장본('김초본')은 마지막 1장이 낙장되었다.

초간본 『노계선생문집』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외형이 후대본(세로 29.0cm x 가로 19.3cm)보다 조금 크다.

둘째, '「世系圖」-「目錄」-「圖」' 순이며, 「세계도」는 1世 朴中美부터 17世 天柱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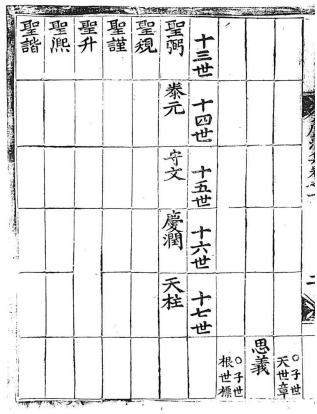
龍潭에 은거하여 洛閩書와 東國儒賢의 문집을 탐독하였다. 문집으로 『近庵集』이 있다.

22) • '연세대본'; 2卷 1冊. 표제 '蘆溪集 單', 四周雙邊, 半郭 20.0 x 16.3㎝, 有界, 10行 20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2.4 x 20.1㎝, 등록번호 00040044325, 청구기호 고서(I)811.98 박인로 노-판; • '대구한의대본'; 2卷 1冊. 표제 '蘆溪先生文集 乾', 四周雙邊, 半廓 19.9 x 15.0㎝, 內向四葉, 有界, 10行 20字, 註雙行, 32.6 × 20.4㎝. M0173977, 청구기호 고810.819 노계선ㄱ V.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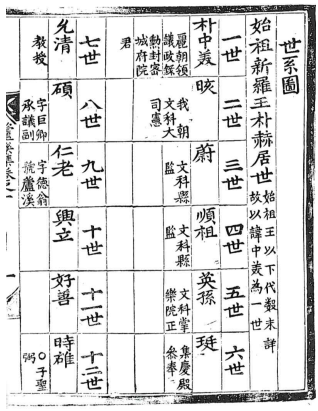
23) 필요한 경우 필자 소장본은 '김초본'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은 '한글박본'으로 약칭한다.

24) 2019년 8월 29일 오후 이태화 · 이진오 선생과 함께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촬영하였다. 촬영하느라 고생하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지 수록하였다. 정규양이 찬한 노계의 「행장」에도 박중미를 중시조라고 하였다. 박중미(?~?)는 朴晉綠의 아들로 고려 충목왕 때 登第하여 中書令, 寶文閣, 大提學 등을 지냈다. 그리고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서경까지 침입하였을 때 안우, 정세운, 이방실 등과 함께 적을 물리친 공으로 輔理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를 제수 받았으며 密直府院君에 봉해졌다.[25]



〈그림 1〉 '동경초본' 세계도 2뒤



〈그림 2〉 '동경초본' 세계도 1앞

셋째, 문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지1에는 앞부분에 「序」, 「世系圖」, 「目錄」, 「圖」를 수록하였고, 이어서 노계의 한시문인 賦(1편), 詩(93수), 傳(1편), 記(1편)를 수록하였으며, 권지2에는 부록으로 노계 관련 한시문인 「無何翁傳九仞山記跋」(張顯光), 「山字五絶韻奉呈蘆溪朴公」(5수, 鄭好信), 「行狀」(鄭葵陽), 「墓碣銘 幷序」(李鼎秉)를 수록하였다. 권지3(歌)에는 「태평사」와 「누항사」 등 가사 7편과 소위 「조홍시가」(4수)와 「오륜가」(25章) 등 시조 60수를 수록하였다.[26]

---

25) 박중미의 묘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 묘봉에 있으며, 1932년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 698번지에 妙峰齋를 건립하였다. 문화공보실, 『내 고장 전통문화』, 청도군, 1982, 119-120면.

26) 「序」(金裕憲, 제1장-제4장), 「世系圖」(제1장-제3장), 「目錄」(제1장-제4장), 「圖」(제1장-제3장; 「中庸誠圖」, 「大學敬圖」, 「小學忠孝圖」, 「自警目」) ▲ 『蘆溪先生文集 卷之一』(蘆溪 遺文, 제1장-제19장); ○賦(1편)-「捫足賦」, ○詩(93수); •五言絶句(9수)-「題德淵亭」, 「卽事」, 「病中詠懷」(2수), 「贈鄭公延吉」,

넷째, 고사본 『노계집』에 수록된 시문과 『노계집』 이후에 수합한 시문을 수록하였는데, 정하원과 최옥이 다음과 같이 적지 않은 부분을 讎校하였다.[27]

① 시문의 수록 순서를 바꾸었다. 「九仞山」 : 「九仞山」(「鄭公延吉幽居」 다음),[28] 「戴勝吟」 : 「戴勝吟」(「蘆溪卜居」 앞), 「投足賦」 : 「捫足賦」(「題德淵亭」 앞), 「郡守報營狀(제목 없음)」 : 「郡守報營狀」(「鄕儒請褒賞程文」 다음), 「輓詞」 : 「輓詞」(「巡相請褒啓狀行」 다음), 「山字五絶韻奉呈蘆溪朴公」(제목 없음) : 「山字五絶韻奉呈蘆溪朴公」(「無何翁傳九仞山記跋」 다음) 등이다.

② 시문의 제목을 바꾸었다. 「投足賦」 : 「捫足賦」, 「蘆洲」 : 「蘆溪卜居」, 「臨潭卽事」 : 「江村卽事」, 「婚日詠鴈」 : 「迎壻日詠鴈」, 「請旌蘆溪朴公啓狀」 : 「巡相請褒啓狀」, 「常向文」 : 「兩丁祝文」 등이다.

③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大學敬圖」 등 도상이 자세하고 체계화되었다. 낙장된 「中庸誠圖」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시문의 구절은 「卽

「贈崔上舍起南」, 「蘆洲幽居」(2수), 「題崔上舍山亭」, •五言律詩(3수)-「鍊玉亭」, 「朝陽閣」, 「天字十五韻贈樂山亭主人」, •七言絶句(73수)-「戴勝吟」, 「蘆溪卜居」, 「詠首陽松」, 「謾興」, 「四友亭」(8수), 「江村卽事」, 「夢陪先親覺後泣書」, 「月城古池次李提督三省韻」, 「送全節度三達赴關西」(2수), 「戲贈富山鄭公延吉」(2수), 「贈鄭奉事弘業」, 「述懷」, 「述明德洞義贈鄭公延吉」(3수), 「黃太守呼韻」(2수), 「述懷」(2수), 「有感」(2수), 「贈鄭公延吉」, 「題琢玉橋」, 「卽事」, 「迎婿日詠鴈」, 「吳山書院敬次張旅軒韻」, 「次友人韻」, 「黃鳥無世態」, 「謾興」, 「翫月」, 「四時吟」(8수), 「春日詠懷」, 「次李僉知明遠金剛臺韻」, 「新春」, 「戲贈東湖主人」, 「奉呈細谷亭主人」(3수), 「次竹院韻」(2수), 「耕田歌」(10수), 「贈細谷亭主人」, 「芙蓉」, 「百日紅」, 「中秋泛舟」, 「鄭公延吉幽居」(2수), 「九仞山」, •七言律詩(6수)-「贈鄭奉事」, 「吳山書院奉呈張旅軒」(2수), 「題鍊玉亭」, 「題明遠樓」, 「奉呈細谷亭主人」, •七言古詩(2수)-「鶯花不棄貧」, 「安分吟」, ○傳(1편); 「無何翁傳」, ○記(1편); 「夢見周公記」; ▲『蘆溪先生文集 卷之二』(附錄-蘆溪 관련 漢詩文, 제20장-제39장); 「無何翁傳九仞山記跋」(張顯光), 「山字五絶韻奉呈蘆溪朴公」(5수, 鄭好信), 「又呈鄰字二絶韻」(2수, 鄭好信), 「又呈七言律詩」(3수, 鄭好信), 「鄕儒請褒賞呈文」, 「郡守報營狀」(沈之源), 「巡相請褒 啓狀」(李溟), 「輓詞」(曺好益), 「行狀」(鄭葵陽), 「郡誌人物」, 「道溪祠宇上樑文」(李德弘), 「奉安文」(李復仁), 「兩丁祝文」(孫德升), 「墓碣銘 幷序」(李鼎秉), 「竪碣慰安文」(鄭夏源), 「跋」(제1장-제6장); 「跋」(鄭夏源), 「跋」(崔鋈); ▲『蘆溪先生文集 卷之三(歌)』(제1장-제33장); 「太平詞」, 「莎堤曲」, 「陋巷詞」, 「早紅柿歌」(4章), 「船上歎」, 「獨樂堂」, 「嶺南歌」, 「蘆溪歌」, 「五倫歌」(25章), 「辛酉秋與寒岡浴于蔚山椒井」(2수), 「立巖歌」(22章), 「思親」, 「慕賢」(2수), 「蘆洲幽居」, 「自警」(3수). * 권지2의 芝山 曺好益(1545~1609)이 찬한 「輓詞」는 지산이 노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므로 다른 사람이 쓴 것인데, 1882년에 간행된 『芝山集』 권지1에 동일한 것이 「輓朴萬戶德翁仁老」로 수록되어 있다.

27) 김문기, 앞의 글, 11-26면; 김창규, 앞의 책, 2006b, 43-83면 참고.

28) '「九仞山」 : 「九仞山」(「鄭公延吉幽居」 다음)'에서 ' : '의 앞부분은 『노계집』, 뒷부분은 『노계선생문집』의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다.

事」(鷗鷺眠沙際 游魚戱碧波 忘形相伴坐 斜日在山坡 : 白鷺眠沙際 游魚戱碧波 貪看仍久坐 斜日在山坡), 「有感」(永慕幽懷老益深 春花秋月倍傷心 無端霜露徒增感 足履年年淚不禁 : 永慕情懷老益深 窮天無地盡吾心 楸原霜露偏增感 省掃年年淚不禁) 등과 같이 수정한 경우가 많고, 가사도 「사제곡」의 "三公不換 此江山은 엇디 일온 말숨인고 : 三公不換 此江山을 오놀ᄉᆞ 아라고야"와 「누항사」의 "年々의 이렁ᄒᆞ기 죽고져도 ᄒᆞ것마ᄂᆞᆫ : 年年의 이러ᄒᆞ기 苟且ᄒᆞᆫ 줄 알건만ᄂᆞᆫ"과 같이 구절 일부를 수정하였다.[29] 즉 직설적이거나 노골적인 표현을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는 등 노계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개하고,[30] 일부는 가사의 율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다.

④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였다. 노계의 한시문 중에서 「四友亭」의 제9수, 「有感」의 제3수, 「安貧」, 「耕田歌」의 제8수·제10수·제13수, 「鄭延吉幽居」의 제3수, 「贈延吉」, 「題鍊玉亭」 등을 삭제하고, 「사제곡」과 「누항사」의 일부와 「상사곡」과 「권주가」 전부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노계 관련 한시문 중에서 「蘆溪朴公遺事撮攷」, 「山字五絶韻奉呈蘆溪朴公」의 제7수·제12수, 柳進士의 詩(4수) 등도 삭제하였다. 권지3(歌)에 「상사곡」과 「권주가」는 노계를 기리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궁핍한 모습이나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어서 삭제하였다.[31]

---

29) 김석배 편, 앞의 책, 17-40면 참고.

30) 김사엽, 「蘆溪 入巖曲의 系譜」, 『논문집』 3, 경북대, 1958, 37면; 김문기, 앞의 글; 황충기, 앞의 책, 152면; 김창규, 앞의 책, 2006b, 43-83면.

31) 삭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시; "續而能散世無人 末路其誰恤我貧 陋巷葛裘甘餓死 區區何忍乞諸鄰"(「安貧」)과 "我怨神農如制耕 使吾今日困於耕 田間竭力猶飢餒 福在蒼天不在耕"(「耕田歌 十三韻」, 제8수), "初頭有主各分耕 强者橫侵弱者耕 末路人心渾若此 如今難見讓而耕"(「耕田歌 十三韻」, 제10수). 「사제곡」; • 世遠人亡ᄒᆞ야 千載孤蹤이 아득히 그처시니, • 나ᄂᆞᆫ 말 업시 수이도 밧고완쟈 / 恒産도 보려ᄒᆞ니 히옴업시 이노매라, • 鶴髮을 뫼시고 白髮애 아ᄆᆡᆫ 줄 모ᄅᆞ도록". 「누항사」; • 얼머만히 바ᄃᆞᆫ 밥의 懸鶉稚子들은 / 將碁 버덧 ᄒᆞᆫ 미덧 나아오니 / 人情天理예 ᄎᆞᆷ마 혼자 머글넌가, • 다ᄆᆞᆫ ᄒᆞᆫ 뷘 독 우희 어론털 덜 도든 늘근 쥐ᄂᆞᆫ / 貧多務得ᄒᆞ야 恣意揚揚ᄒᆞ니 白日 아래 强盜로다 / 아야라 어든 거ᄉᆞᆯ 다 狡穴에 앗겨두고 / 碩鼠 三章을 時時로 吟詠ᄒᆞ며 / 歎息無言ᄒᆞ야 搔白首ᄲᅮ니로다 / 이 中에 탐살은 다 내 집의 모홧ᄂᆞ다, • 술 고기 이시면 권당 벗도 하련마ᄂᆞᆫ / 두 주먹 뷔게 쥐고 / 世態업슨 말ᄉᆞᆷ애 양ᄌᆞ ᄒᆞ나 못 괴오니 / ᄒᆞᄅᆞ 아젹 블릴 쇼도 못 비러 마랏거든 / ᄒᆞᄆᆞᆯ며 東郭磵間의 醉ᄒᆞᆯ ᄯᅳ들 가질소냐, • ᄎᆞᆯ하리 첫봄의 ᄑᆞ라나 ᄇᆞ릴거ᄉᆞᆯ / 이제야 폴려ᄒᆞᆫᄃᆞᆯ 알리 잇사 사라오랴, • 이제야 쇼 비리 盟誓코 다시 마쟈, • 가난타 이제 주그며 ᄀᆞᄋᆞ며다 百年 살라 / 原憲이ᄂᆞᆫ 몃 랄 살고 石崇이ᄂᆞᆫ 몃 히 산고 / 貧富 업시 다 주그니 주근 후에 던이 업다.

⑤ 다음 시문을 추록하였다. 「蘆洲幽居」의 제2수, 「天字十五韻贈樂山亭主人」, 「題明遠樓」, 「又呈鄰字二絶韻」, 「又呈七言律詩」(3수), 「郡誌人物」, 「墓碣銘幷序」, 「竪碣慰安文」, 「跋」(2편) 등을 새로 추가하였다.

3. 『노계선생문집』의 후대본 검토

『노계선생문집』은 한 차례 복간본이 간행되었으며, 그 후 필요에 따라 追刻과 補刻이 이루어지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覆刊本(1880년경)

현재로서는 복간본이 간행된 정확한 이유와 시기를 알 수 없다. 초간본의 책판은 큰 火災 때[32] 灰塵된 것으로 추정되며, 蘆溪祠堂을 복원한 1880년(庚辰) 무렵[33]에 복간본을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간본의 모습은 '장서각본'[34]이 잘 보여주고 있다. '장서각본'에는 초간본을 수정한 것과 글자체가 다소 달라진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蘆溪先生文集卷之二, 附錄, 無何翁傳九仞山記跋~竪碣慰安文((…)維敬(…)祇篤洞酌), 39뒤-空(끝부분 蘆溪先生文集卷之二)'과 추각한 '維敬(…)祇篤洞酌+續附(次詠竹韻~右志景慕), 42뒤-空(끝부분 蘆溪先生文集卷之二)'이 따로 첨부되어 있어 복간본과 추간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논의의 편의상 권지1·2는 '續附'가 없는 것 즉 복간본을 '장서각본A', '續附'가 있는 것 즉 추간본을 '장서각본B'라고 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장서각본'이라고 한다.

복간본('장서각본A')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2) 박영환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예전에 어른들로부터 큰 화재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박영환, 개인인터뷰(전화), 202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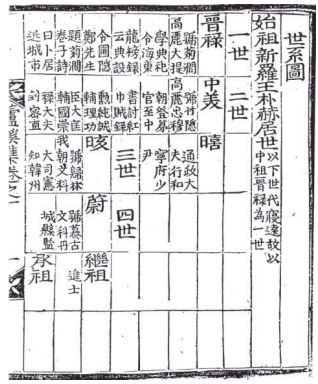
33) 「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영천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eongcheon.grandculture.net(2021.3.31. 검색). 『매일신문』에는 1770년에 도괴된 노계사당을 1880년경 마을 복판에 복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聚落(139), 永川군 北安면 道川 1동(密陽朴氏 마을)」, 『매일신문』, 1980.7.24.

3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청구기호 D3B 125 v1, v2[古 第013251, 013252號]).

첫째, 「世系圖」는 완전히 改版하여 1世 晉祿[35]부터 20世 容鎭까지 수록하고 내용도 자세하며, '「目錄」-「世系圖」-「圖」' 순이다. '동경캠본'[36]을 제외한 후대본은 모두 '장서각본'의 「세계도」와 동일하다.[37]



〈그림 3〉 '동경캠본' 세계도 1앞



〈그림 4〉 '장서각본A' 세계도 1앞

한편 '동경캠본'는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세계도」-「목록」-「도」' 순이며, 「세계도」도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1世 朴中美-17世 天柱'이다. 복각할 때 12세 時亮의 아들 升聖의 '升' 字가 다소 달라졌다. 「세계도」가 복간본을 간행할 당시에 복각한 것인지 '동경캠본'을 인출할 당시에 복각한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복간본 간행 때 두 종류의 「세계도」를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동경초본'



〈그림 6〉 '동경캠본'

'장서각본'의 「세계도」는 노계의 윗대는 직계만 수록한 초간본과 달리 방

35) 박진록은 본관은 밀양이며 字는 在中이고 號는 菊磵이다. 牧隱 李穡과 같은 해에 급제하여 獻納, 提學 등의 벼슬을 지냈으며, 국화를 사랑하여 당호를 菊磵이라 하였다. 정몽주 지음, 박대현 옮김, 『포은집』, 한국고전번역원, 2018, 295면, 주 136. *「세계도」에는 '菊磵'이 '菊澗'으로 되어 있다.

3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소장(등록번호 D2199, 청구기호 D810.819 박69, v.1). 권지3의 뒤표지 안쪽 면에 '光武甲辰印'이 날인되어 있다.

37) 최근에 간행된 『密陽朴氏密直府院君派世譜』(2013)에는 中美를 中祖로 하고 있다.

계까지 수록하고 일부는 수정하였다. 즉 초간본의 "始祖新羅王朴赫居世以下代數未詳 故以諱中美爲一世"를 "始祖新羅王朴赫居世以下世代寢遠 故以中祖晉祿爲一世"로 바꾸고, 1세(중시조)로 "晉祿 號菊澗 高麗大提學典祀令 海東龍榜錄云典設令 圃隱鄭先生題菊澗卷子詩曰 卜居近城市 心遠絶世塵 愛花獨愛菊 種之幽澗濱 燦爛歲將暮 手擷清香新 物我自妙合 於焉樂天眞 籬東晉淵明 澤畔楚靈均 千載誰同操 于今見斯人 載圃隱集中"을 내세운 한편 "朴中美 麗朝領議政 錄勳封密城府院君"을 "中美 號竹隱 高麗忠穆朝登第官至中書 討紅巾賊 錄勳純誠輔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密直府院君", "蔚 文科 縣監"을 "蔚 號慕古 文科 丹城縣監"과 같이 호와 관직 등 선조의 행적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聖熙(13세)를 聖熙(14세)로, 守文(15세)을 尙文(16세)으로 고쳤다.

그런데 중시조를 1대 위인 박진록으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 『圃隱先生文集』에 실려 있는 정몽주의 「菊磵卷子」[38]가 박진록과 관련 있는 시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를 중시조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둘째, 초간본의 글자를 삭제한 곳이 몇 군데 있다. 「行狀」 가운데 "溫敬峙賢有行 爲親廬墓"(제31장 앞면 8행)의 '敬峙'의 '峙'을 삭제하여 빈칸으로 남아 있다.[39] 그리고 「墓碣銘幷序」 가운데 "先考墓下配淑夫人慶州李氏子男長興立次敬立"(제38장 앞면 4행)의 '慶州'도 삭제하여 빈칸으로 남아 있다.[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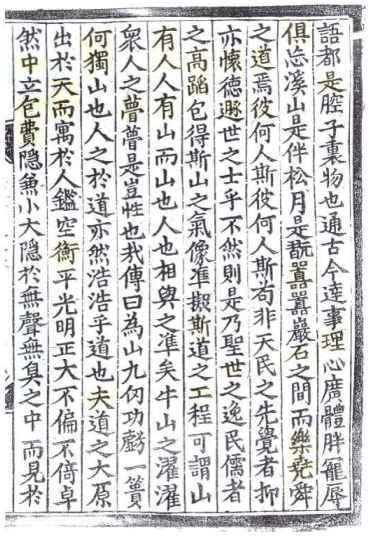
38) 鄭夢周, 「菊磵卷子」, 『圃隱先生文集』 卷之二. "卜居近城市, 心遠絶世塵. 愛花獨愛菊, 種之幽磵濱. 粲爛歲將暮, 手擷清香新. 物我自妙合, 於焉樂天眞. 籬東晉淵明, 澤畔楚靈均. 千載誰同調, 于今見斯人."; 정몽주 지음, 박대현 옮김, 앞의 책, 295-296면. "사는 집이 성시에 가깝지만, 마음이 멀어서 속진을 끊었네. 꽃 중에 국화를 유독 사랑하여, 그윽한 시냇가에다 심어 놓았네. 한 해 저물 때 찬란히 피어나니, 맑은 향의 새 꽃을 손으로 따네. 외물과 자신이 저절로 합치하니, 여기서 하늘의 참맛을 즐기도다. 울타리 동쪽의 진나라 연명이여, 못가를 거니는 초나라 영균이여. 천 년 뒤 누가 이 같은 기상일까, 오늘날 이 사람에게 보게 되누나."

39) '성균관대본' 등 일부에서는 빈칸에 墨書로 '立'을 써넣었다. *고사본 『노계집』과 노계 비문에는 흥립과 경립도 '峙'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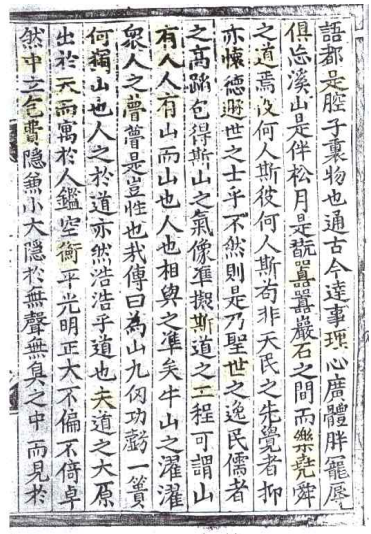
40) '성균관대본' 등에는 빈칸에 묵서로 '德水'를 써넣었고, 노계 묘비에도 후대에 '德水'로 수정하였다. 이정병의 『琴坡先生文集』(1936 간행)의 「蘆溪朴公墓碣銘幷序」(권5, 제10장 뒤)에 '德水李氏'로 되어 있는 것은 노계의 부인이 충무공 이순신의 따님이라는 노계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密陽朴氏密直府院君派世譜』(1986)에는 "配淑夫人德水李氏父忠武公李舜臣 忌丁丑五月二十五日〇墓祔"로 되어 있으나 최근의 『密陽朴氏密直府院君派世譜』(2013)에는 "配淑夫人德水李氏 忌丁丑五月二十五日 墓

셋째, 글자를 誤刻한 곳이 있다. 권지1 가운데 제12장 앞면 8행의 "地培養工程百倍耕"의 '工'과 뒷면의 "仲秋泛舟"(8행)의 '泛舟'와 "常恨蘇仙赤壁遊"(9행)의 '赤壁遊', "晩明月仲秋未泛舟"(10행)의 '秋末'를 제대로 판각하지 못해 알아볼 수 없다.

넷째, 글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상당수 있다. 다음은 『노계선생문집』 초간본과 갑진본의 권지2의 제21장 앞면으로 여헌 장현광이 찬한 「無何翁傳九仞山記跋」의 일부이다. 권지1 · 2의 경우, 필자 소장의 '갑진본'[41]을 비교 자료로 삼은 것은 이 부분의 상태가 '장서각본'보다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림 7〉 '동경초본' 권지2, 21장 앞



〈그림 8〉 '갑진본' 권지2, 21장 앞

祔"로 수정되었다. 朴秀鎔, 『密陽朴氏密直府院君派大同譜』, 回想社, 1986, 72면; 朴東俊, 『密陽朴氏密直府院君派大同譜』, 大譜社, 2013, 44면. 노계가 충무공 이순신의 사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오래전에 이은상이 「蘆溪硏究의 正誤—蘆溪는 忠武公의 사위가 아니다—(2)」, 『조선일보』, 1955.11.5-6[2회]에서 밝힌 바 있다.

41) 권지1 · 2(표제 '蘆溪集 乾)에 '續附'가 있고, 권지3('歌 蘆溪集 坤乾')에는 「도산가」가 없다. "正宗庚申刊 光武甲辰印"이 권지1 · 2의 뒤표지 안쪽 면에 날인되어 있고, 권지3에는 없다. 광무 갑진은 1904년이다.



「동초 矗」 「갑진 矗」 「동초 石」 「갑진 石」 「동초 堯」 「갑진 堯」

〈그림 9〉 是翫矗矗巖石之間而樂堯舜(권지2, 21장 앞 2행)

이와 같이 글자체가 뚜렷하게 다른 것을 행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是'는 세 번째 글자인 '是'를 뜻한다.

〈표 1〉 글자체가 뚜렷하게 다른 경우

행	내 용
1행	3-是, 14-理,
2행	1-俱, 11-矗, 14-石, 18-樂, 19-堯
3행	2-道, 4-彼
4행	2-懷, 4-遯, 15-世
5행	2-高, 3-蹈, 13-斯, 16-工
6행	1-有, 2-人, 4-有
7행	1-衆, 4-瞢
8행	1-何, 2-獨, 16-夫
9행	3-天, 4-而, 10-衡
10행	2-中, 4-包, 5-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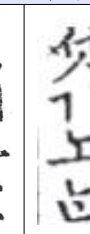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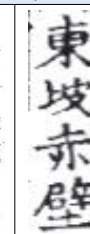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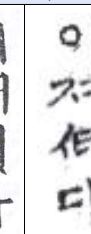
복간본에서 글자체가 초간본과 달라진 것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일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권지1·2에서 글자체가 달라진 것부터 정리한다. '縹 : 14앞 3행 5자'는 제14장 앞면 셋째 줄의 다섯 번째 글자가 '縹'라는 뜻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다.

〈표 2〉 복간본에서 글자체가 초간본과 달라진 대표적 예

구 분	내 용		
세계도	升 : 1뒤 5칸 6줄		
목록	樂 : 1뒤 7행 7자	度 : 2앞 4행 4자	輓 : 4앞 2행 8자
도	中庸誠圖 : 앞-智	뒤 : 仁-知	뒤 : 聲
권지1	縹 : 14앞 3행 5자	翁 : 16뒤 4행 3자	翁 : 16뒤 6행 9자
권지2	是 : 21앞 1행 3자	囂 : 21앞 2행 11자	堯 : 21앞 2행 19자
	故 : 25앞 7행 15자	幸 : 25뒤 9행 14자	墻 : 26앞 4행 3자
	友 : 27앞 6행 1자	利 : 27앞 7행 9자	答 : 28앞 3행 18자
	遇 : 30앞 5행 18자	業 : 30뒤 1행 20자	證 : 30뒤 4행 3자
	省 : 30뒤 7행 3자	岦 : 31앞 8행 3자	眞 : 32앞 4행 5자
	雖 : 32앞 7행 1자	文 : 32뒤 10행 3자	使 : 33앞 2행 5자
	周 : 33앞 10행 6자	毁 : 37뒤 2행 1자	山 : 38앞 3행 17자
	惕 : 38뒤 10행 1자		
	38앞 4행 9, 10자 慶州(빈칸 또는 德水-墨書로 補寫)		
續附	幸(賴) : 39앞 3행 9자	鳥 : 39앞 3행 11자	蹟 : 39앞 7행 4자
	日 : 39앞 7행 13자	辰 : 39앞 7행 15자	川 : 39앞 7행 18자
발	先 : 1앞 2행 10자	於 : 5앞 2행 13자	

다음은 권지3(歌) 가운데 초간본인 '김초본'과 복간본인 '장서각본' 사이에 차이가 나는 예이다.

〈그림 10〉 초간본인 '김초본'과 복간본인 '장서각본' 사이 차이가 나는 예

4앞 5-17, 거		5뒤 5-9, 坡		8뒤 10-3, 졋		28앞 9-4, 起	
							
김초본	장서각본	김초본	장서각본	김초본	장서각본	김초본	장서각본

이와 같이 '김초본'과 '장서각본' 사이에 차이가 뚜렷한 것 가운데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 '김초본'과 '장서각본' 사이에 차이가 뚜렷한 경우

글자가 다른 것					
장	행	자	한글박물관본	장서각본	비 고
4앞	5	17	거	기	섯거 노ᄂᆞᆫ : 섯기 노ᄂᆞᆫ
8뒤	10	3	쩟	쩌	이져쩟다 : 이져쩌다
10앞	3	2	가	기	가ᄂᆞᆫ ᄒᆡ를 : 기ᄂᆞᆫ ᄒᆡ를
24뒤	1	3	로	보	모ᄅᆞ로라 : 모ᄅᆞ보라
25앞	3	8	냐	나	重ᄒᆞᆯ소냐 : 重ᄒᆞᆯ소나
25뒤	2	15	예	에	ᄉᆞ이예 : ᄉᆞ이에
28앞	10	14	마	미	마암이 : 미암이
29앞	7	1	딘	딘	아모딘줄 : 아모딘줄
30앞	10	19	혜	헤	다시 혜여 : 다시 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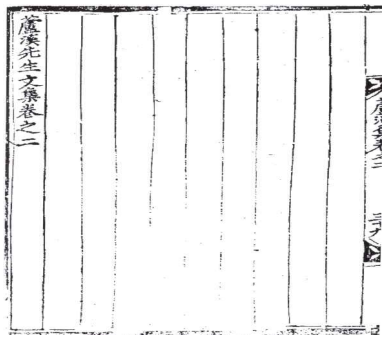
글자체가 다른 것				
장	행	자	글자	비 고
5뒤	5	9	坡	東坡 赤壁遊ㄴᆡ돌
5뒤	9	6	며	任意 逍遙ᄒᆞ며
6뒤	7	19	쇠	풀은 쇠 되도록
7앞	4	2	生	生涯 이러ᄒᆞ다
8앞	8	3	日	來日로 주마 ᄒᆞ고
9앞	4	8	로	다문 인가 너기로라
9앞	5	12	를	두세 이렁 밧논를
9앞	7	6	노	젼혀 부러 말렷노라
9앞	8	6	貴	남의 富貴 불리 너겨
10앞	2	2	勻	萬勻을 늘려내야
12앞	1	12	漁	漁父 生涯을
13뒤	6	7	치	我先生ᄭᅴ 기치도다
17앞	6	10	日	日月갓치 ᄇᆞᆯ가시니
17앞	7	4	明	밤길히 明燭 잡고
17앞	8	7	誠	誠意正心 ᄒᆞ야
17앞	8	20	言	言忠行篤 ᄒᆞ야
17뒤	6	6	년	어ᄂᆡ 世業 가질년고
18앞	3	5	ᄭᅳᆺ	河海ᄀᆞᆺ치 깁흔 ᄭᅳᆺ에
19앞	4	20	니	公庭이 無事ᄒᆞ니
23앞	7	15	昊	昊天罔極이라
23뒤	3	6	를	父母 섬기기를
24앞	9	14	니	君父 갓게 삼겨시니
26뒤	5	9	진	진실로 삼가지

26뒤	6	1	親	辱及其親 ᄒᆞ오리다
28앞	9	4	起	夫子의 起予者ᄂᆞᆫ
30앞	6	11	무	아무려 風乎舞雩詠
30앞	9	13	보	가ᄂᆞᆫ 고기 다 보닌다
30앞	10	11	새	새물에 고기를
30뒤	8	4	江	栖江 興味ᄂᆡᆫᄃᆞᆯ
31앞	5	6	보	停雲嶺 ᄇᆞ라보니
31뒤	8	8	雲	雲母屛風을 ᄀᆞᆺ 그린 ᄃᆞᆺ
32앞	5	7	쑴	반가올 샤 오ᄂᆞᆯ 쑴에
33앞	2	5	솔	九仞山 긴 솔 베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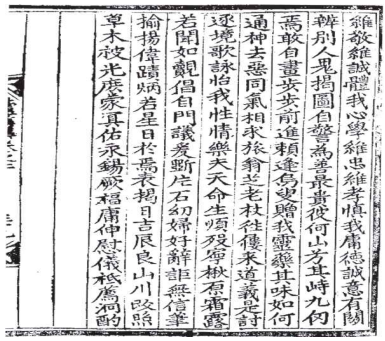
2) 追刊本(1900년 이전)

노계의 10대 종손 容鎭(1869~1900)의 歿年인 1900년 이전에 추간본이 간행되었다. 초간본 및 복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明溪 鄭好義의 시 3수(「次詠竹韻」, 「次山字韻」, 「次人字韻」)와 정하원의 시 4수(「辛卯孟春偕崔子成讎校蘆溪公逸稿時 (…) 賀竪石, 叙戰功, 述學問, 志景慕」)를 추록하기 위해 권지2에 '續附'(제39장-제42장)를 추각한 것이다.

'장서각본A'의 권지2 다음에 첨부된 부분인 '장서각본B'가 추간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장서각본A' 권지2, 39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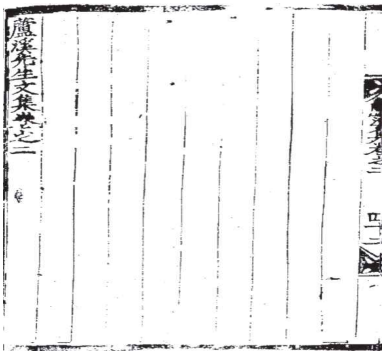
〈그림 12〉 '장서각본A' 권지2, 39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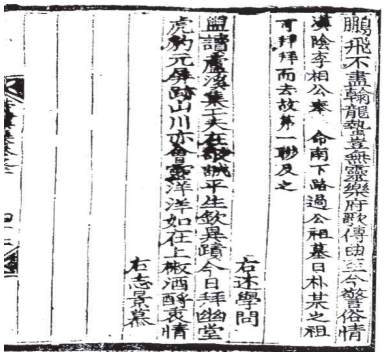
〈그림 13〉 '장서각본B' 권지2, 39뒤



〈그림 14〉 '장서각본B' 권지2, 39앞



〈그림 15〉 '장서각본B' 권지2, 42뒤



〈그림 16〉 '장서각본B' 권지2, 42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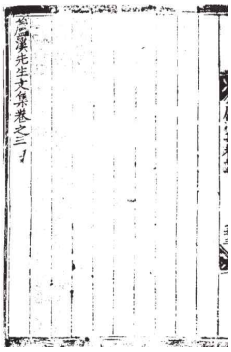
3) 甲辰本(1904년)

1904년에 「陶山歌」를 수록한 갑진본이 간행되었다.[42] 「도산가」가 노계의 작품으로 알려지자 이를 수록하기 위해 권지3 뒷부분에 「도산가」(제33장-제35장)를 추각한 것이다. 표지 안쪽에 雙行으로 '正宗庚申刊 光武甲辰印'이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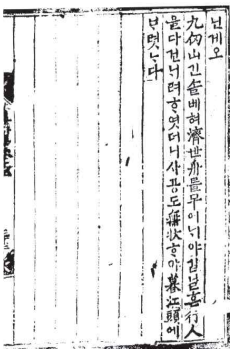
42) 김창규, 「蘆溪歌辭 新稿」, 『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 6, 문리대 국어국문학회, 1958, 70-71면. "그런데 蘆溪 後孫들이 살고 있는 孝洞을 筆者가 찾아가서 가장 年滿한 분에게 陶山歌 經緯를 들어보니까 約 五十年 前에 陶山歌가 나타나서 陶山歌를 새로 印刻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光武 甲辰 곧 1904년이 확실하다."

되어 있는 판본이 많다.[43] 광무 갑진은 1904년이다. 당시 '심악본'[44]처럼 「도산가」를 수록한 판본과 필자 소장본처럼 「도산가」를 수록하지 않은 판본을 동시에 간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심악본'에는 '蘆溪先生文集卷之三'이 없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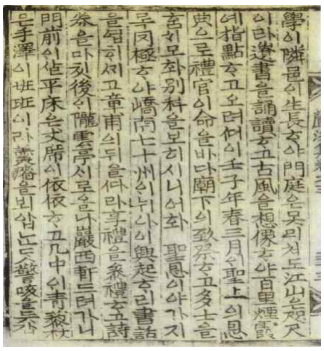


〈그림 17〉 '장서각본' 권지3, 33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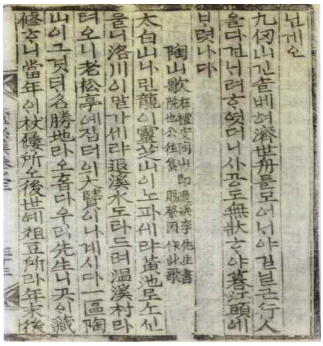


〈그림 18〉 '장서각본' 권지3, 33앞





〈그림 19〉 '심악본' 권지3, 33뒤



〈그림 20〉 '심악본' 권지3, 33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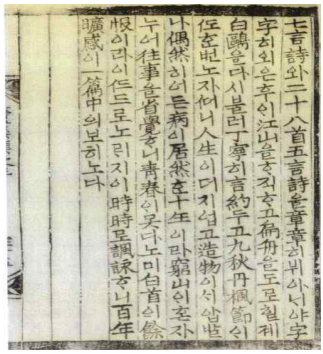
43) '正宗庚申刊 光武甲辰印'은 '성균관대본', '규장각본'(奎 15516), '동경캠본', '이종문본', '영남대古南본'(영남대 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古南810.819 박인로 v.1), '백민본'(경북대 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古白811.8 박69ㄴ-1/-2) 등에 날인되어 있다.

44) 서울대 도서관 소장 심악 이숭녕 기증본(청구기호 심악819.53 B148n v.3).

45) 서울대 도서관 소장 일사 방종현 기증본(청구기호 일사819.53 B148n v.3, '正宗庚申刊 光武甲辰印'이 없음)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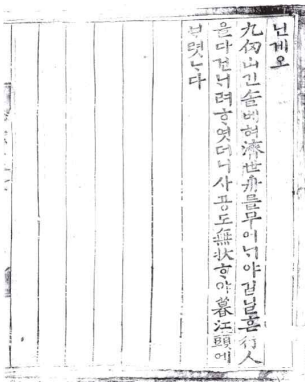


〈그림 21〉 '심악본' 권지3, 35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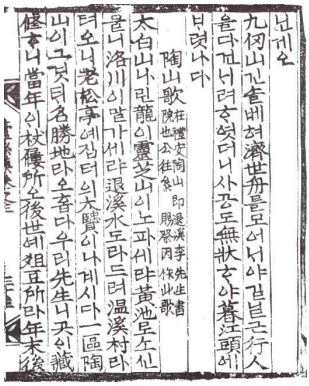


〈그림 22〉 '심악본' 권지3, 35앞

이 판본을 간행한 후 「도산가」의 誤刻과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제33장-제35장을 새로 판각한 補版本도 간행하였다. '노기본'[46]은 「도산가」의 오각을 바로잡았으며, 제35장 뒷면에 "蘆溪先生文集卷之下"를 새겨 넣었다. 다만 1900년 이전 추간본을 간행할 때 「도산가」를 추각하였고, 그 후 1904년에 「도산가」의 오각을 바로잡기 위해 보판본을 간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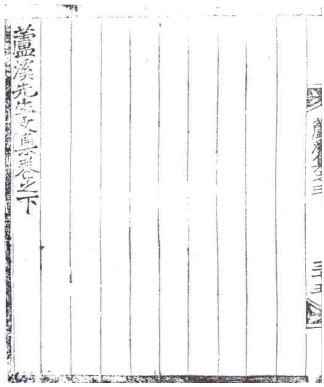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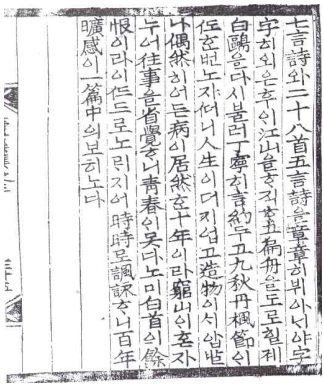
〈그림 23〉 '백민본' 권지3, 33앞



〈그림 24〉 '노기본' 권지3, 33앞

46)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에서 2021년 3월 영인(대보사)한 것이다. 영인본에는 '正宗庚申刊 光武甲辰印'이 없지만 원본에는 권지1·2와 권지3의 뒤표지 안쪽 면에 각각 날인되어 있다.


〈그림 25〉 '노기본' 권지3, 35뒤


〈그림 26〉 '노기본' 권지3, 35앞

〈표 4〉「도산가」 가운데 '심악본'과 '노기본'의 글자와 글자체가 다른 예

「도산가」 가운데 '심악본'과 '노기본'의 글자가 다른 것					
장	행	자	심악본	노기본	비 고
34앞	4	12	지	자	올나안지 : 올나안자
34앞	8	20	소	손	더ᄒᆞᆯ소가 : 더ᄒᆞᆯ손가
34앞	10	17	기	ᄀᆡ	소리기 : 소리ᄀᆡ
34뒤	7	7	치	처	고치 안자 : 고처 안자
34뒤	7	14	겨	켜	비겨 : 비켜
34뒤	7	15	(빈칸)	ㅎ	고 : ㅎ고[47]
34뒤	7	20	예	옛	예 曲調을 : 옛 曲調을
35앞	7	10	이	어	노ᄅᆡ 지이 : 노ᄅᆡ 지어
35뒤	10	1-9	x	蘆溪先生文集卷之下	

47) 'ㅎ고'는 '안고'의 오각이다. '심악본'에는 빈칸에 墨書로 '안' 자를 써넣었다.

「도산가」 가운데 '심악본'과 '노기본'의 글자체가 다른 것				
장	행	자	글자	비 고
33앞	6	16	黃	黃池로 소신
33뒤	2	6	誦	誦讀ᄒᆞ고
33뒤	2	20	霞	百里 煙霞예
33뒤	6	7	南	嶠南 七十州ᄋᆡ
33뒤	6	19	書	書話을 엽ᄒᆡ
33뒤	8	16	軒	巖西軒 드려가니
33뒤	10	5	班	班班이라
33뒤	10	6	班	班班이라
34앞	3	13	正	由正門 다시 나와
34앞	3	14	門	由正門 다시 나와
34앞	4	13	遠	遠近 山川을
34앞	4	14	近	遠近 山川을
34앞	5	7	屛	東翠屛 西翠屛은
35앞	1	16	뷔	章章히 뷔아ᄂᆡ야
35앞	5	13	年	居然ᄒᆞᆫ 十年이라

그런데 「도산가」는 박인로의 작품이 아니다. 일찍이 조윤제는 「도산가」를 趙時成(1792~1874)의 작품으로 보았으나,[48] 이동영과 이가원이 恬窩 趙星臣(1765~1835)의 작품으로 밝혔다.[49] 한편 권지3 제33장 앞의 "긴 솔 베혀"의 '솔'이 '슬'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50] 현전 책판의 '솔'자도 다소 다르게 보여 그 까닭을 알기 어렵다.

4) 庚子本(1960년)

1960년 제2차 추간본인 庚子本이 간행되었다. 1957년 손균이 시조 「입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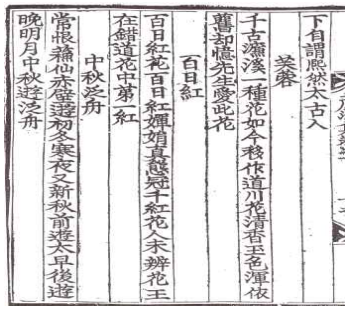
48) 조윤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236면.
49) 이동영, 「陶山歌 作者에 對한 諸家의 錯誤」, 『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 1, 청구대학 문학회, 1955, 35면; 「陶山歌 作者에 대하여」, 『조선일보』, 1955.12.14-15; 이가원, 「陶山別曲贊論(中)」, 『현대문학』 18, 1956.6, 193-196면.
50) '솔'로 된 것은 '백민본'과 필자 소장본, 이종문 소장본 등이고, '슬'로 된 것은 '규장각본', '성균관대본' 등이다.

」 7수를 더 발굴하고,[51] 1959년에는 이상보가 『大東風雅』의 "江湖에 노ᄂᆞᆫ 고기 (…) 한가한 ᄯᅴ 업세라"를 노계의 시조로 소개하여[52] 이를 수록하기 위해 추각한 것이다. 노계의 11대 종손 朴洙文(1897~1959)이 1959년에 추각을 시작하여 1960년 여름에 권지3 末尾에 蔡山 權相圭의 「後敍」[53]를 추록하여 간행하였다.

권지1 가운데 제5장과 제12장을 새로 판각하고, 권지2에 「立巖書院通文」(제42장)을 추각하였다.



〈그림 27〉 '장서각본' 권1, 12뒤



〈그림 28〉 '백강본' 권1, 12뒤

복간본의 오각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 판각하였는데, 앞면 8행 "地培養工程

51) 孫宇男(1564~1611)의 후손인 孫均이 『孫氏隨見錄』에 수록되어 있는 「立巖二十九曲」을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 손균, 「立巖二十九曲—새로 발견한 時調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 5, 청구대 국어국문학회, 1957; 김사엽, 앞의 글.

52) 이상보, 「노계시가의 배경」, 『현대문학』 1959.12, 241면. 이 시조의 작자는 『병와가곡집』, 『해동가요(일석본)』, 『해동가요(주씨본)』, 『악부(서울대본)』 등에는 이정보로 되어 있고, 『청구영언(가람본)』과 『대동풍아』 등에는 박인로 되어 있는데, 李鼎輔(1693~1776)의 작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104면. "이 작품의 작가가 박인로냐 이정보냐에 대하여는 먼저 그 출전의 성격 신빙도를 생각해보아야 하겠는데 이정보로 된 4책은 연대가 오래요 작가 표기 의식이 뚜렷하고 이정보와 가까운 시기에 편찬된 책들이요, 박인로로 된 책은 「靑詠」이 연대 미상이나 그리 오래지는 않는 책일뿐더러 「大東」 또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책이요 작가의 오류가 많은 것들이다. 그리고 內容 作風에 있어서도 박 노계 작품으로 추정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다."

53) 2장 4면으로 "後敍 詩歌始自唐虞 (…) 書之如右云 永嘉後人權相圭謹書"이다. 권상규(1874~1961)는 본관은 安東이며, 자는 致三이고 호는 蔡山·忍庵이다. 沖齋 權橃의 후손으로 조부는 權鎭夏, 부친은 의병장 權世淵이다. 을미사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으며, 1896년에 다시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였다. 경술국치 이후로 세상과 인연을 끊고 동서양의 역사를 탐독하여 당시의 국제 정세를 파악했다. 문집으로 『忍庵集』(24권 12책)이 있다. 「권상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http://people.aks.ac.kr(2021.3.30. 검색).

百倍耕"의 '工'을 '二'로 오각하고, 뒷면 10행 "晩明月仲秋未泛舟"의 '未'를 '遊'로 오각하였다.

권지3에는 새로 발굴된 「입암」 7수[54]를 추각하기 위해 제28장 대신 2판(二十八의 一, 二十八의 二)을 새로 판각하였다. 권지3은 '백강본'[55]과 같이 「도산가」가 있는 것[56]과 '경북대古본'[57]과 같이 「도산가」가 없는 것이 있다. '백강본'은 '심악본'의 책판을 사용하였는데, 제35장(七言詩와 (…) 보히노다 續刊 江湖에 노ᄂᆞᆫ 고기 (…) 한가ᄒᆞᆫ ᄯᅴ 업세라)은 새로 판각하면서 '심악본'과 몇 글자가 달라졌다.[58] 그리고 「도산가」가 없는 판본에는 「후서」 가운데 「도산가」 관련 부분인 "陶山歌一篇於古家箱篋追刊而附于卷末"을 깎아내고 인출하여 그 부분이 빈칸으로 남아 있다.

〈표 5〉 '백강본'과 '경북대古본' 비교

구 분	「도산가」 부분	「후서」 부분
'백강본' 「도산가」가 있는 판본 (제33장-제35장)	닌게오(…)ᄇᆞ렷나다 + 陶山歌 太白山 나린 龍이 (…) 一篇中의 보히노다 + 續刊 江湖애(…)한가ᄒᆞᆫ ᄯᅴ 업세라	(…) 其後得[陶山歌一篇於古家箱篋追刊 而附于卷末]但立巖歌二十九曲 (…)
'경북대古본' 「도산가」가 없는 판본 (제33장)	닌게오(…)ᄇᆞ렷ᄂᆞ+續刊 江湖애(…)한가한 ᄯᅴ 업세리+蘆溪先生文集卷之三	(…) 其後得[빈칸]但立巖歌二十九曲 (…)

54) 시조 「立巖」은 초간본 『노계선생문집』에 3수("無情히 서ᄂᆞᆫ 바회 (…) 고칠 젹이 업ᄂᆞ다", "江頭에 屹立ᄒᆞ니 (…) 大丈夫ㄴᆡ가 ᄒᆞ노라", "卓然直立ᄒᆞ니 (…) 奇觀이야 만ᄒᆞ니라")가 수록되어 있다. 새로 발굴된 7수와 그 연유(【 】)를 더하여 다음과 같이 판각하였다. "無情히 서ᄂᆞᆫ 바회 (…) 고칠 젹이 업ᄂᆞ다, 江頭에 屹立ᄒᆞ니 (…) 大丈夫ㄴᆡ가 ᄒᆞ노라, 【ᄒᆞᆫ 말도 업슨 바회 (…) 사괼 ᄉᆞᆯ 모ᄅᆞ노라, 此下二曲丙申春孫均其先祖水錄採得送之故庚子夏追刊, 繩墨 업시 삼긴 바회 (…) 돌마도 못하랴】, 卓然直立ᄒᆞ니 (…) 奇觀이야 만ᄒᆞ니라, 【世情이 하 殊常ᄒᆞ니 (…) 삼긴 대로 늘그리라, 此下五曲丙申春孫均其先祖水錄採得送之故庚子夏追刊, 天皇氏 처음부터 (…) 드러보려 하노라, 巢許 지낸 後에 (…) 時運인가 하노라, 從容 히 다시 뭇자 (…) ᄒᆞᆷ긔 늘자 ᄒᆞ노라, 唐虞를 그재 본 ᄃᆞ시 (…) 나도 너와 늘그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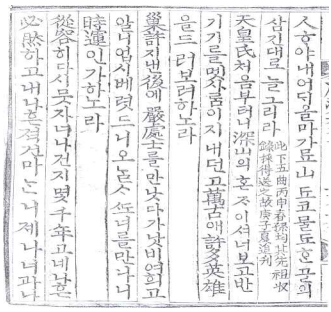
55) 경북대 도서관 소장 백강 서수생 기증본(古백강811.1 박69ㄴ).

5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모古3648-25-291), 영남대도서관 소장본(古목810.819 박인로-v.1) 등 상당히 많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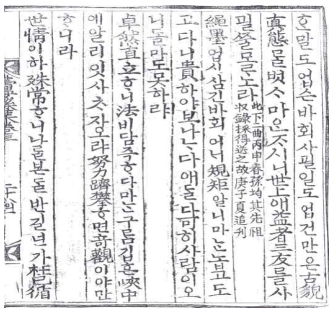
57) 경북대 도서관 소장본(古811.1 박69ㄴ).

58) '또 ᄒᆞᆫ 번 → 또 ᄒᆞᆫ 변', '人生이 → 人生ᄋᆡ', '靑春ᄋᆡ → 靑春의', '노ᄅᆡ 지어 → 노ᄅᆡ 지여' 등이다.

제2차 추간본인 경자본의 특징을 도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백강본' 권지3, 28의1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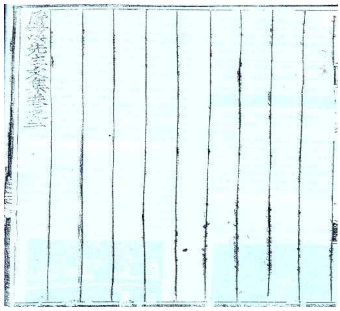
〈그림 30〉 '백강본' 권지3, 28의 1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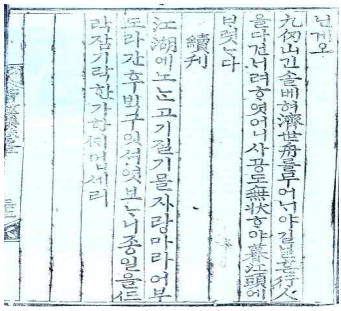
〈그림 31〉 '노기본' 권지3, 34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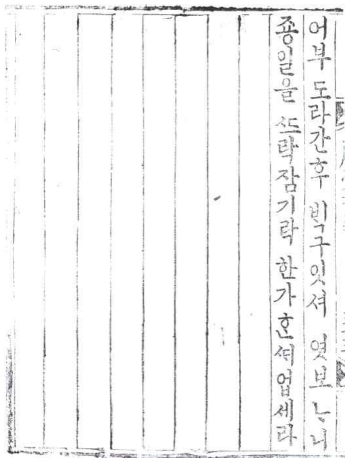
〈그림 32〉 '백강본' 권지3, 34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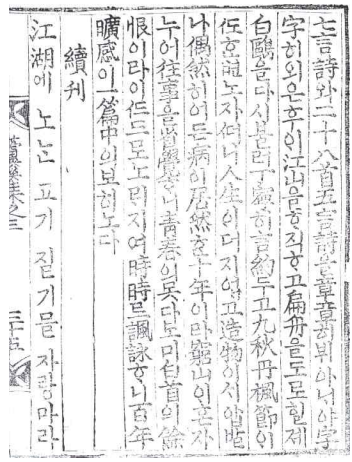
〈그림 33〉 '경북대古본' 권지3, 33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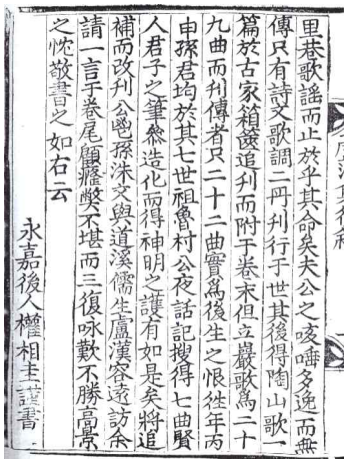
〈그림 34〉 '경북대古본' 권지3, 33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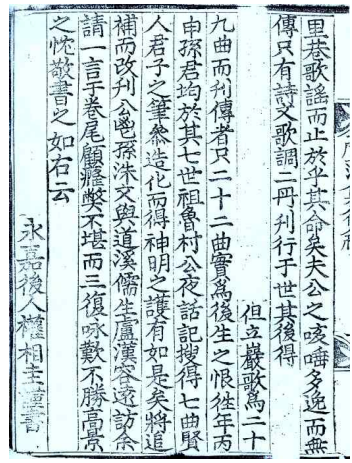
〈그림 35〉 '백강본' 권지3, 35뒤



〈그림 36〉 '백강본' 권지3, 35앞



〈그림 37〉 '백강본' 후서



〈그림 38〉 '경북대古본' 후서

이 밖에 이상에서 살펴본 판본과 다른 판본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행할 때 여러 책판 중에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인출한 결과일 것이다.

후대본의 추·보각 양상을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한다.

〈표 6〉 후대본의 추·보각 양상

구 분	초간본 1831년	복간본 1880년경	추간본 1900년 이전	갑진본 1904년	경자본 1960년
序	1-4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世系圖	1-3장 1세 박중미	1-3장 1세 박진록	좌동	좌동	좌동
目錄	1-4장	좌동	좌동	좌동	보완
圖	1-3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卷之一	1-19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卷之二	20-39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續附	·	·	39-42장	좌동	「立巖書院通文」(42장) 추각
跋	1-6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卷之三	1-33장	좌동	좌동	좌동	·「입암」 7수(28-1·2장) 추각 ·시조 1수(江湖에 …) 추각
陶山歌	·	·	·	33-35장 추각 有·無 2종	좌동 有·無 2종
後序	·	·	·	·	1-2장 추각

4. 맺음말

노계 박인로에 대한 연구는 1930년 이은상이 선편을 잡은 이래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논저가 나와 노계 문학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시각의 논문이 계속 발표될 것이다.

노계문집의 판본에 대해서는 이른 시기의 몇몇 논의를 제외하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에 필자는 1831년에 간행된 초간본 『노계선생문집』 권지3(가)을 찾아내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계선생문집』의 판본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31년에 『노계선생문집』 초간본을 3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노계의 4대손 聖規가 『경오본 노계가집』이 간행된 1690년 후 노계의 문집 편찬을 시작한 이래 여러 대에 걸친 노력 끝에 7대손 慶浩와 8대손 天柱·希柱가 중심이 되고 鄭夏遠·崔鎏이 주관하여 간행한 것이다. 초간본의 두드러진 특징은 '「世系圖」-「目錄」-「圖」' 순이고, 「세계도」는 1世 朴中美-17世 天柱까지 수록하고, 고사본 『노계집』을 수정, 보완하거나 삭제하였다.

둘째, 『노계선생문집』에는 복간본과 추간본 등 여러 판본이 있다.

① 覆刊本; 노계사당을 복원한 1880년 무렵에 복간본을 간행하였다. 초간본을 수정한 것과 오각한 것, 글자체가 달라진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장서각본A'가 복간본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卷之一의 「世系圖」는 1世 晉祿-20世 容鎭까지 수록하고, 순서도 '「目錄」-「世系圖」-「圖」'로 하였다. '동경캠본'은 '「세계도」-「목록」-「도」' 순이고, 「세계도」도 초간본을 복각한 것이므로 당시 2종의 복간본을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追刊本; 1900년 이전에 초간본 및 복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明溪 鄭好義의 시 3수와 정하원의 시 4수를 추록하기 위해 간행하였다. 권지2에 '續附'(제39장-제42장)를 추각한 것으로, '장서각본B'가 추간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③ 甲辰本; 1904년에 「도산가」(제33장-제35장)를 수록하기 위해 갑진본을 간행하였다. 「도산가」가 없는 판본과 「도산가」가 있는 판본이 있다. 그 후 「도산가」의 오각을 바로잡기 위해 「도산가」 부분을 새로 판각한 보판본을 간행하였다.

④ 庚子本; 1960년에 권지2에 「立巖書院通文」(제42장)을 수록하고, 권지3에 새로 발견된 「입암」의 7수(제28-1 · 2)와 『대동풍아』의 "江湖에 노ᄂᆞᆫ 고기 (…) 한가한 ᄯᅴ 업세라"를 수록하기 위해 경자본을 간행하였다. 노계의 11대 종손인 朴洙文이 1959년에 추각을 시작하여 1960년 여름 권지3 끝에 權相圭의 「後敍」를 붙여 간행하면서 복간본의 오각을 다시 판각하였다. 「도산가」가 있는 판본('백강본')과 「도산가」가 없는 판본('경북대古본')이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음 과제는 『노계선생문집』 책판 중에서 1980년에 사라진 것을 되찾는 일이다.[59] 더 늦기 전에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고 노계문학관과 노계 문중, 영천시, 학계 등이 지혜를 모아

59) 현재 전하는 『노계선생문집』 책판은 초간본 때의 것이 아니며, 복간본 때 책판부터 추 · 보각된 책판 가운데 일부이다. 1970년대에는 총 61판이 전해왔는데, 1980년에 27판이 도난되어 34판이 전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33판이 보관되어 있고, 노계 종가에 1판이 소장되어 있다. 『노계선생문집』 책판에 대해서는 김석배, 앞의 글, 2017a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그 책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 참고문헌

『노계선생문집』 판본;
경북대 도서관 소장본(경대古본)
경북대 도서관 소장본(백강본)
경북대 도서관 소장본(백민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김석배 소장본(갑진본)
김석배 소장본(초간본 권지3)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영인본(2021년 영인)
단국대 도서관 소장본
대구한의대 도서관 소장본(초간본 권지1·2)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소장본A(초간본 권지1·2)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소장본B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서울대 도서관 소장본(심악본)
서울대 도서관 소장본(일사본)
성균관대 도서관 소장본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초간본 권지1·2)
영남대 도서관 소장본 수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한글박물관 소장본(초간본 권지3)

「聚落 (139), 永川군 北安면 道川1동(密陽朴氏 마을)」, 『매일신문』, 1980.7.24.
구수영, 「노계 박인로의 시가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6.
김문기 역주, 『국역 노계집』, 역락, 1999.
김문기, 「노계집 고사본의 고찰」, 『동양문화연구』 7,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80, 1-30면.
김사엽, 「蘆溪 入巖曲의 系譜」, 『논문집』 3, 경북대, 1958, 31-74면.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연구」,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2006b, 219-236면.
_____, 「『노계선생문집』 책판에 대하여」, 『선주논총』 20, 금오공과대 선주문화연구소, 2017a, 133-236면.
_____, 「『노계선생문집』 초간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7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b, 7-31면.
김석배 편, 『경오본 노계가집』, 구미문화원, 2006a.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4.
김용철, 「박인로 강호가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김창규, 「蘆溪歌辭 新稿」, 『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 6, 문리대 국어국문학회, 1958, 64-82면.
_____, 『노계시문학원전자료집성』, 박이정, 2006a.

_____, 『노계시문학논고』, 박이정, 2006b.
_____, 『노계시평석』, 박이정, 2008.
_____, 『노계시의 재조명』, 박이정, 2012.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신역 노계집』, 대보사, 2017.
노계연구총서 편찬위원회 지음, 『노계 문학세계와 문화콘텐츠화 전략』, 영천시, 2017.
문화공보실, 『내 고장 전통문화』, 청도군, 1982.
朴東俊, 『密陽朴氏密直府院君派大同譜』, 大譜社, 2013.
박성의, 『노계가사통해』, 白潮書店, 1960.
朴秀鎔, 『密陽朴氏密直府院君派大同譜』, 回想社, 1986.
성호경, 「박인로의 〈노계가〉 창작 배경 탐색-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의 '대현동구' 일대」, 『고전문학연구』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35-63면.
손 균, 「立巖二十九曲—새로 발견한 時調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 5, 청구대 국어국문학회, 1957, 25-42면.
손장수, 「노계 박인로의 시문에 드러난 전고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19.
손진태, 『조선고가요집성』, 東京 刀江書院, 1929.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이가원, 「陶山別曲贅論 (中)」, 『현대문학』 18, 1956.6, 현대문학사.
이동영, 「陶山歌 作者에 對한 諸家의 錯誤」, 『국어국문학연구논문집』 1, 청구대학 문학회, 1955a.
_____, 「陶山歌 作者에 대하여」, 『조선일보』, 1955b. 12.14-15.
이상보, 「노계시가의 배경」, 『현대문학』, 1959.12.
_____, 『개고 박노계연구』, 일지사, 1962.
_____, 『노계시가연구』, 이우출판사, 1980.
이은상, 「시인 노계와 그의 예술 (1-11)」, 『조선일보』, 1930.1.1-14.
_____, 「蘆溪硏究의 正誤—蘆溪는 忠武公의 사위가 아니다—(2)」, 『조선일보』, 1955.11.5-6.
이종문, 「노계 박인로 문학의 창작 공간과 유적 관련 몇 가지 탐색」,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179-216면.
_____,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a, 289-307면.
_____, 「입암이십팔경의 위치에 관한 재검토」, 『한국학논집』 39,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9b, 201-224면.
_____, 「〈노계가〉의 창작 연대와 노계 박인로의 노주 은둔 시기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47,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2, 303-326면.
_____, 「노계 박인로 행장의 변개 사실에 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97, 한국언어문학회, 2016, 157-184면.
_____,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노주 이주의 현실적 동인」, 『한국언어문학』 104, 한국언어문학회, 2018a, 201-232면.
_____, 「노계 박인로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82, 민족어문학회, 2018b, 33-70면.
정몽주 지음, 박대현 옮김, 『포은집』, 한국고전번역원, 2018.

조윤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최남선, 『시조유취』, 한성도서, 1928.
최영희, 「노계 박인로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2003.
최현재, 「박인로 시가의 현실적 기반과 문학적 지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황충기, 『노계 박인로 연구』, 국학자료원, 199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2021.3.30. 검색).
「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영천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eongcheon.grandculture.net(2021.3.30.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Block Versions of *Nogyeseonsaengmunjib*

Kim, Sug-Bae*

There are several block versions of Nogye Park In-ro's *Nogyeseonsaengmunjib*.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all the versions of *Nogyeseonsaengmunjib*, following the discovery of the volume 3 (ga) in the first version of *Nogyeseonsaengmunjib*.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rst block version composed of 3 volumes and 2 books was published in 1831. The first version was published by Jeong Ha-won and Choi Ok collaborating with the seventh descent Park Gyeong-ho and the eighth descents Park Cheon-ju and Park Hui-ju since the fourth descent Park Seong-gyu started compiling in 1690. The characteristic of the first version is the order of 'pedigree-catalogue-diagram' and the progenitor Park Joong-mi and his descents up to the seventeenth descent Park Cheon-joo are recorded in "pedigree". The first version was the modifed, supplemented, or deleted version of manuscript version *Nogyeseonsaengmunjib*.

Second, there are several block versions of *Nogyeseonsaengmunjib* such as the second block version and the additional ver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rsions are as follows:

① The second version was published in about 1880. The progenitor Park Jin-rog and his descents up to the twentieth descent Park Yong-jin are recorded in "pedigree", and the order is 'pedigree-catalogue-diagram'. Some were modified, and some were mis-carved, and some were typographically changed.

② The additional version was published before 1900. Some poetry and prose that were not in the first block version and the second block version were added on the volume 2.

③ The 'Gabjin' version was published in order to record "dosanga" in 1904, and there are two block versions. One includes "dosanga", but the other doesn't.

* Professor,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④ The ‘Gyeongja’ version was published in order to record the newly found “ipahm” 7 shijo and “ganghoae ...” in 1960, and there are two block versions. One includes “dosanga”, but the other doesn’t. The mis-carved parts of the second block version was corrected. “ipamseowontongmun” was added on the volume 2, and “huseo” written by Kwon Sang-gyu was added on the volume 3.

Keywords: Park In-ro, *Nogyeseonsaengmunjib*, first edition, Park Cheon-ju, Park Hui-ju, Jeong Ha-won, Choi Ok, characteristic, later versin, second block version, additional version, ‘gabjin’ version, ‘gyeongja’ version, “ipahm” 7 shijo, “dosanga”, “huseo”.

접수일: 2021.03.30.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11.